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22일)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8월 28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 종단 대표들이 함께 했다.

자승 스님 "대학생 전법, 범불교적 동참을"

상월결사, 8월 28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

자승 스님, 전법 동참 요청에
진각 · 관음 · 태고종 등 참여
종파 초월한 적극 협조 약속
9월 11일 전법대회 개최키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전법 · 포교는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신도 없는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각 종단은 서로의 종지종풍은 존중하면서 전법 · 포교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학생 전법 불사에 범불교적 동참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한국불교 주요 종단 수장들은 적극적 동참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28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부회장 종단 대표들이 함께 했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이 배석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전 종단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지금 포교하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10년 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주요 종단 대표들을 모신 것은 대학생 전법 불사에 각 종단이 가진 역량을 결집시켜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1년에 1개 대학의 불교동아리가 창립될 수 있도록 각 종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24개 교구본사가 1년에 1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창립키로 원력을 모았다"면서 "여기에 각 종단의 힘이 모아진다면 10년 내 모든 전국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수만 명의 대학생 불교동아리 회원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앉아있는 불교, 말로 하는 불교는 죽은 불교"임을 지적한 자승 스님은 "오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학생 전법 워크숍에 각 종단 인재를 전법위원으로 파견해, 함께 전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종단 총무원장 · 통리원장들께 요청드린다"면서 대학생 전법에 각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은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이 시대적 소명인 만큼 주요 종단 지도자 스님들의 고견의 자리를 만들라는 자승 스님의 지침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젊은 불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미래의 동량이 될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주고 지원하여 진실한 불자를 육성하는 데 오늘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단협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학생 전법 불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각 종단 인재를 전법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기금 모연 등에도 동참키로 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언론을 통해 조계종 교구본사가 지역 대학생 불자를 섭수하는 것을 종단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종단 스님들도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연을 맺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신도 고령화와 청년불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임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종파를 초월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진각종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의 기초를 닦는 불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청년 포교가 미약한 시점에서 이 같은 불사를 일으키니 감회가 새롭다. 종파를 떠나 적극 협조해 전법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대학생 전법 불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대학생 전법 불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대작 불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하며, 9월 11일에는 전법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전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간서 중생교화 주인 되라"

조계종 성파 종정예하 하안거 해제법어 내려

8월 30일 전국 선원 해제 법회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계묘년 하안거 해제(8월 30일)를 맞아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8월 28일 발표한 해제 법어에서 "낱낱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사람들 발밑에는 맑은 바람이 분다. 거울을 깨트려 그림자마저 없나니, 긴 소리로 우는 새가 소나무 가지에 오르도다", "꽃은 뜰 앞의 빗소리에 웃고, 솔은 난간 밖의 바람에 운다. 어찌 묘한 이치를 궁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뚜렷이 통함이로다"라고 두 편의 게송을 인용했다.

성파 대종사는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마음에 편협함과 성냄,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없는지 수행자 된 역량을 점검하고, 산문을 벗어나 세간에 나아가서는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궁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주, 곧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계묘년 하안거 선원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7곳 · 비구선원 61곳 ·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 1888명(총림 249명 · 비구 1065명 · 비구니 574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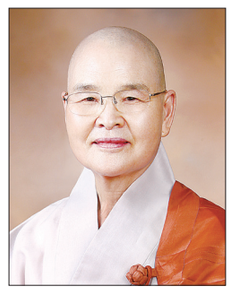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예하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13대 비구니회장 단독후보 광용 스님, '자격 이상 無'

전국비구니회, 8월 31일 자격심사서 결정

9월 18일 임시총회서 인준 후 당선증 배부



9월 18일 치러지는 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서 서울 성림사 회주인 광용 스님〈사진〉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13대 비구니회장 선출위원회는 8월 31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자격심사를 열고 단독후보 광용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광용 스님은 8월 27일 마감한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회 시행규칙 제3조 3항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은 9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열릴 제17차 임시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회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시총회 정족수는 회칙 21조 ① 항에 준한다. 비구니회 회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임시총회 인준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비구니회 장선거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다.

광용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발전하는 비구니회 모습을 보고 봉사하고자 출마했다"면서 "본각 회장 스님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비구니회의 내실을 다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화합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용 스님은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3년 소림사에서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졸업 후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서울 마포구에 성림사를 창건, 지역민 마음치유 등을 통한 포교에 앞장서 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관련기사 3면〉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기원
2023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3 팔관회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일시 : 2023. 9. 10(일)오전 11시
장소 : 초읍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일원
문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참가신청 행사 당일 현장 접수
접수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오후 1시 30분 마감)
어울림한마당 15:00 경품추첨 -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스탠바이미고(이동식 TV) 등
축하공연 - 인기가수와 함께하는 축하공연
김연자 별사랑 성 리 양지원 서일도와 아이들 정서주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9. 10(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턴 투워드 부산
11. 11(토) 11시 부산지역 각 사찰
2023 팔관회
10. 21(토) ~ 10. 23(월)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3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